

교회소식

- < 담임목사 방송설교 >
- CBS TV(채널 68) 월 오후 2:00 ~ 2:30
 - 극동 방송(FM 93.3MHz) 수 오후 5:30 ~ 6:00
 - CTS TV방송설교(채널97-1) 목 오후 1:00 ~ 1:30
 - CBS 라디오(FM 91.7MHz) 금 오후 12:30 ~ 1:00



[알림]

*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교회생활안내

1. 3월 1일부터 15일까지 3주간, 주일 오전 2부, 3부 예배 이외의 모든 예배와 모임을 중단합니다.(청년회 및 주일학교 포함)
2. 새벽예배는 "개인 묵상집"(주보6~8면 참조)을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각 처소에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3. 주중에는 예배당 및 교회 시설과 카페를 개방하지 않습니다.
4. 교역자와 직원은 종전대로 업무를 하오니, 필요한 상담과 심방은 언제든지 연락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교회생활지침은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 동정]

1. 소천 - 전상순 전도사(3교구) 모친 / 3일(화)

섬기는 분들

▲월요일당직 : 고윤설 목사

담임목사 조상용	원로목사 김주원	시무장로 김덕현	배정만	홍순영	이원명	이대영
부목사 고윤설	오상욱	김종명	송경호	정기조	윤종명	황덕순
전도사 김명순	조정욱	전상순	김수중	임인성	전용주	
교육전도사 정선교(고등)	지서광(중등)	현기훈(초등)	원로장로 이인창	편봉달	정태응	최영일
	윤재룡		안철호			
직원 박연희(사무)	김현철(관리)		은퇴장로 김영한	장순석	김기성	권소열
어린이집 주경애(원장)	김경희	박선정	권영은	김정은		

교회주소 - 34532 대전광역시 동구 동서대로 1748번길 40 (가양동) FAX 632-0281
 www.jungbu.or.kr / 사무실 622-9991,2 / 큰숲어린이집 622-9995 / 카페(필그림) 625-9991



우리의 비전

위대한 교회
영광스런 교회를
보게 하소서!

4대 사명

- 하나님을 경배하는 교회
- 가정을 치유하는 교회
- 성도를 제자삼는 교회
-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8대 사역

1. 예배 사역
2. 목장 사역
3. 가정 사역
4. 기도 사역
5. 제자 사역
6. 미래 사역
7. 복지 사역
8. 전도 사역

도심 속 하나님의 나라

세종중부교회

(담임목사 하우진)
2018. 7. 7 설립

세종시 보람동
금강베네치아 5층
010-7770-8291

주일예배

1부 / 오전 7:00 2부 / 오전 9:00 3부 / 오전 11:00 4부 / 오후 1:50

* 입례송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 신앙고백	사도신경
회중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 선한 능력으로
참회기도	다같이
대표기도	정기조 장로(2부) / 윤종명 장로(3부)
성경	마 8:5-13
설교	예수님의 기적(8) : 백부장의 아인을 고치신 기적 조상용 담임목사
헌금	546장
광고	인도자
* 공동체고백	사명선언문
* 폐회송	우릴 사용하소서
축도	조상용 담임목사

* 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안내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1부/오전10:00(본당)
2부/저녁7:30(중예배실)

목요일성기대회 저녁 8:00 (본당)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해
3월 1일 ~ 15일 까지 쉽니다

새벽기도회

새벽 5:00 (본당)

목요전도

오전 10:00 (소예배실)

- 각 처소에서 -

- 잠정 연기-

다음주 봉사안내

주일오전	1부		안내위원	2,3부	2 여 전 도 회	
	2부	윤종명 장로		헌금위원	2,3부	담 당 자
	3부	황덕순 장로		주보배부	2,3부	2 여 전 도 회
주일새벽	금 주		식당봉사	금 주		
	내 주			내 주		
주일오후	내 주		주차위원	나승문 김상복 김중현 김태순 박노태 박대수 이길천 이종규 임춘수		
	내 주			차량운행	2호/ 이본구 집사 010-8281-3779	
수요일예배	1부		3호/ 김동윤 집사 010-6804-5574			
	2부		권소열 장로 010-8070-3533			
			4호/ 유창중 집사 010-6407-8515			
			5호/ 이울성 집사 010-9033-5338			
			6호/ 채기병 집사 010-5579-9103			
			임인성 장로 010-9577-9500			

예배시간 안내

주	1부 예배	오전 7:00	유아부	오전 11:00	수	1부 예배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9:00	유치부			2부 예배	저녁 7:30	
	3부 예배	오전 11:00	유년부			목	목요일성기대회	저녁 8:00
	4부 예배	오후 1:50	초등부				매일	새벽기도회
일	베데스다	오전 9:00	중등부	오전 9:00	오전 9:00	오전 9:00		
	오후예배	오후 4:00	고등부				청년회	오후 1:50

기도 게시판

365일 릴레이 기도 담당

월 (9일)	최영희 조영희
화 (10일)	류순례 송정숙
수 (11일)	심윤중
목 (12일)	오상욱 전상순
금 (13일)	임현성
토 (14일)	황덕순 이종욱
주일 (15일)	유창웅 김정식 정영자 이원명

※ 기도담당자는 하루 한 끼 금식하고 한 시간 이상 집중 기도해 주세요!

기도제목

1. 위대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를 보게 하소서! (마 16:18)
2.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9:20)
3. 365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행 1:14)
4. 담임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소서! (요 17:22)
5. 도시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마 5:16)

중보기도사역

요일	기도 내용	담당	시간	장소
월	교회와 개인을 위해	한혜숙 권사	오전 11시	기도실
화	교회, 선교, 중보, 개인을 위해	이영숙 권사	오전 10~12시	기도실
수	나라와 민족, 교육 부서를 위해	심윤중 권사	오전 11~12시	기도실
목	성령의 능력과 치유, 회복을 위해	목요일성기대회	저녁 8시~10시	본당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이종욱 권사	밤 12시~4시	한나방
금	교회의 모든 사역을 위해	이성희 권사	오후 2~3시	기도실
주일	목사님과 주일 예배를 위해	홍선덕 권사	오전 10~11시	기도실
119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	119 문자	문자 전송 시	처소에서

사명선언문

대전중부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가정을 치유하며, 성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여,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위대하고 영광스런 주님의 교회가 실현되는 날까지, 우리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겠습니다.

게시판

주간 성경읽기

날짜	8일(주일)	9일(월)	10일(화)	11일(수)	12일(목)	13일(금)	14일(토)
성경	삿8-10	삿11-13	삿14-16	삿17-19	삿20-룻3	룻4-삼상2	삼상3-5

♣ 꽃꽂이

* 금주: 김진수, 김진우

* 내주: 김수종 장로, 김영자 권사

모임안내

새가족 성경공부

구분	시간	담당자	기간	장소
새가족반	2, 3부 예배 후	오상옥 목사	4주	공부/ 당회실 만남/ 목양실

평신도 신앙훈련

구분	내용	기간	사역목표	담당자	
새가족양육	새가족반	4주	새가족 필수 과정	오상옥 목사	
	학습·세례준비반	3주	신앙 교육 강화	담당자	
신앙성장과 과정	교리생활공부	1년	1학기: 교리편 2학기: 생활편	담임 목사	
	가정사역학교	13주	행복한 가정 만들기	김혜경 사모	
	제자훈련	제자반	1년	그리스도의 제자양육	교구 목사
		사역반	1년	사역자 양육	담임 목사
	목자훈련	매주	목자훈련	각 교구 교역자	
	양육 1 단계	5주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 경험하기	담당자	
	회복수양회	1박2일	내적 치유	담당자	
	양육 2 단계	8주	성숙한 성도의 삶 경험하기	담임 목사	
	중보기도학교	6주	기도 헌신자 훈련	담당자	
	바나바 학교	4주	새가족 양육자 훈련	담당자	
L M T C	평신도 선교훈련	24주	단기선교 준비 과정	담당자	
청춘 대학	다양한 교육활동	4년	노년의 행복한 삶	조정옥 전도사	
아기 학교	주간 아기 교육	12주	신앙적인 전인교육	김명순 전도사	

3월 행사 안내

--	--

찬양대

구분	찬양대	지휘자	반주자
주일새벽 주일 1부	시 온	이중운	김예원
주일 2부	예루살렘	이규인	피/ 임지희 오/ 문정애
주일 3부	할렐루야	장지이	피/ 김영미 오/ 임형선

구분	반주자
주중새벽	이성희 김경희
주일오후	강주연
수요 1부	문정애
수요 2부	김경희

코로나19 전염방지를 위한 협조의 말씀

최근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신천지 사태로 인해 대전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여 대전 역시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교우들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회생활 지침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당 입장 시에
 - (1) 마스크는 의무적으로 꼭 착용해주시고,
 - (2) 1층 로비에서 손 소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성도들과의 인사는 악수가 아닌 목례로 해주시고, 기침시에는 옷깃으로 가려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주일에는 교회중식과 카페운영을 중단하며, 주중에는 목장 모임을 중단합니다.
- 당분간 화장실쪽 출입구는 사용을 중지하오니, 1층 현관 로비로 출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분간 성도님 외의 새로운 분들의 출입을 금합니다.
- 최근 14일 이내에 해외에 출타를 하였거나 호흡기 증상과 발열이 있는 분들은 예배당 출입을 자제해 주시고,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 주일 말씀으로 은혜받으시기 바랍니다.
- 현재 교회는 주 1회 토요일마다 각 예배실과 교육시설, 그리고 모든 시설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우들께서도 안전한 교회생활과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마음을 모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이 기회에 시편 91:1~7을 암송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선교 및 돕는 기관

- | | |
|---|--|
| <p>♣ 파송선교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정배, 이명국(재현, 은희, 상희) / 태국 · 싱가포르 이종현 / 국내 몽골이주민 사역(부천) 윤명호, 최수옥(인아, 기웅) / 태국 조나단, 김은샘(예지, 혜성, 하라, 이안) / 인도네시아 버여, 총통체책 / 몽골 박춘국, 김은영(주현, 하현, 성현) / 일본 안덕준, 이안나(하민, 하진, 하은) / 베트남 김현숙 / 태국 <p>♣ 협력선교사 및 선교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강민 / 몽골 · 장석현 / 태국 · 이수현 / 필리핀 김재정 / 태국 · 김도형 / 태국 · 장천득 / 캐나다 임태호 / 태국 · 박정선 / 태국 · 오세연 / 남아공 이성울 / 키르기스스탄 · 총회세계선교회(GMS) 산띠팍선교회(SMI) · 일본아가페선교회(AMJ) | <p>♣ 후원교회 및 기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종중부교회 가야곡중부교회 옥천각계교회 대전시기독교연합회 대전성시화운동본부 두란노아버지학교 군선교연합회 주바라기선교회 대전기독교방송 대전국동방송 대전CTS방송 기독교타임즈 총신대학교 대전신학교 동대전중학교 가양중학교 명석고등학교 내홍릉 노인회 가양2동 노인회 신도 노인회 더퍼리 노인회 비래1,2 노인회 내봉 남,녀 노인회 |
|---|--|

지난 주 말씀 요약

예수님의 기적(7) :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막1:29-3)

설교 조상용 담임목사

예수님은 사역 초기에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 또는 표적(Sign)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말씀을 드러내기 위한 계리적인 사건이다. 첫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연약한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시는 구주시라는 것이다. 둘째는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하셨다는 것이다.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신 기적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되어 있다. 이 말씀을 통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라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교훈을 살펴보자.

1. 이 기적은 언제 일어났는가?

(21절)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매”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다.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과 관례에 따라서 안식일에는 예배드리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안식일의 정신은 우리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께 감사 예배드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다. 유대인들의 결정적인 오류는 이 안식일의 정신을 놓쳐버리고, 형식적으로 지키는데 있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날이다! 우리는 부정적으로 “무엇을 안 할까?”로 접근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무엇을 할까?”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는 주일예배를 드리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소외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들이 되자!

2. 이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는가?

(29-30절)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 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예수님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베드로는 지금 안드레와 함께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생업까지 포기하고 예수님만 따르고 있다. 이렇게 교회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가정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정의 부족한 부분을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 내가 얻기 위해 힘쓴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 하나님이 돌보시고 책임져 주셔야 우리는 살 수 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손해 되는 것 같아도, 주님이 나 대신 일을 해주시고, 책임져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자!

3. 이 기적은 어떻게 일어났는가?

(30下-31절) “...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장모의 병을 고쳐달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아니었고, 집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요청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의 부탁을 들으시고, 장모를 고쳐주셨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다. 다른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이다.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장모의 상황을 모르지 않지만, 사람들의 요청을 들으시고 기적을 일으키셨다! 기도는 주님을 일하게 하는 도구다. 예수님처럼 회당에서 나와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날도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우리도 목장에서, 교회에서, 또 언제 어디서든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목장과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3일(금)	찬 484장	고후 11:16-33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	---------------	--------------------	---------------------

바울이 밝힌 고난의 내용(17~20절)은 세상에서는 자랑으로 여기지 않는 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면 무엇보다 자랑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위형과 고난보다 모든 교회를 위한 영려로 매일 놀리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교회를 영려하는 영적 고통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 영혼을 섬기는 일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께 받은 은혜를 아는 자였으며, 진심으로 영혼과 교회를 사랑했으며, 사도로서의 본분을 온전히 감당한 자였습니다.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교회, 영혼을 섬기는 일을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며 감당하고 있습니까?

14일(토)	찬 456장	고후 12:1-10	약한 그 때 강함이라
---------------	---------------	-------------------	--------------------

고린도교회가 환상과 계시 등 신비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에 의해 휘둘리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나도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어느 한 사람을 안다”는 식으로 마치 다른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듯 자신의 경험을 언급합니다(2~5절). 사실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을 시작으로 바울에게는 수많은 신비 체험이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자신의 환상과 계시에 지나치게 몰두하며 알고자 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6절). 바울이 보기에 참된 영적 권위는 신비 체험과 같은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자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7~9절). 그의 자랑은 자신의 약함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함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계속해서 그 능력을 붙잡아왔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9~10절). 나는 내게 있는 썩어져 갈 것들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찾아봅시다.

15일(주일)	찬 455장	고후 12:11-21	덕을 세우기 위해
----------------	---------------	--------------------	------------------

바울은 고린도교회로부터 어떤 헌금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마게도냐 지방의 빌립교회 등으로부터 헌금을 받았던 것과는 대조되는 일이었습니다. 이를 두고 바울을 모함하는 고린도교회 일부 성도들은 바울이 예루살렘교회를 위한 연보를 걷으면서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고 비방했습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정면 대응을 하기보다는 그들의 미성숙을 깨우치고 있습니다(13절). 바울에게는 고린도교회를 향한 아버의 심정이 있었습니다(14~15절). 그는 자신에 대해 재물을 속임수로 취했다고 비방하는 고린도교회 성도들의 죄악을 영려했고, 그 죄악을 회개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할까봐 영려했던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아버와 같은 동역자입니까? 내가 아버의 심정으로 못사람의 영혼을 인도하며 성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성령님께 간구합니다.

향기로운 예물

십 일 조

- 권미옥 권영숙 김근홍(문정애) 김덕현(하점순) 김성현a 김수종 김옥진
 김현철(조경희) 김형민(윤혜성) 남상천(김선희) 노소담(조정옥) 박은희 박종보
 송은규(임명숙) 순정숙 안성현(김선미a) 안종근(국은희) 양명자 양영준(서영순)
 양희찬(황인순) 윤상덕(양길용) 윤재룡(송영희) 이관희 이본구(길준숙)
 이인창(임유례) 이재숙 이종규(이혜실) 이종훈(이지연) 이지연(이종훈)
 인치경(김영재) 임몽룡(양홍순) 임인성(조정예) 임춘수(이종란a) 장영애
 전용주(권연옥) 정상남(이은숙) 조규연(서정순b) 지서광 최영애 최영일
 최용호(박미순) 최정숙 최진수(서정순a) 최현순 편봉달(김금화) 편홍석(이진형)
 하현희 황명동(이후남, 황훈)

감사헌금

- 강용주(김경희) 고윤설(박혜란) 고한례 구왕성 김경덕(이수진a) 김수종(김영자b)
 김영천(남정혜) 김태순 김현철(조경희) 김혜자 도소재 양명자 오연자 이신순
 조상용(김혜경) 최용호 하용호(문희정) 무명6

선교헌금

- 권미옥(윤석진) 권연옥 권영숙 길준숙 김경화 김근홍(문정애) 김덕현(하점순)
 김병률(최정숙) 김성현 김수종(김영자) 김숙자b 김영미 김영자b 김인숙b 김정순d
 김진선(최정숙) 김현철(조경희) 김희경(장정금) 남상천(김선희) 노광숙(노소담)
 노성종(김마리아, 노은서, 노하준) 박지월 백승주(김옥진) 송영신 송은규(임명숙)
 안성현(김선미, 안홍준, 안홍민, 안시윤) 양명자 양희찬(황인순) 윤재룡(송영희) 이본구
 이은숙 이인창(임유례) 이재숙 이종훈(이지연) 인치경(김영재) 임인성(조정예)
 임춘수(이종란) 장윤겸 장지이 전용주 정상남(이은숙) 조정옥 최용호(박미순)
 편봉달(김금화) 하현희 황명동(이후남, 황훈)

교회사랑천사헌금 김성현a 윤경희 무명

장학금 후원계좌: 301-0072-3936-51 (농협-대전중부교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9일(월)	찬 211장	고후 9:6-15	즐거 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	---------------	------------------	------------------------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와 관련해 관대함과 기쁨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연보하는 사람이 마지못해 억지로 하거나 아까운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타인과 비교하지 말고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정한 대로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가르쳤습니다(7절). 또한 넉넉히 나누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셔서 풍성히 나누기 기회도 허락하신다고 설명합니다(8절). 그러므로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넉넉한 마음으로 너그럽게 연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연보한 자들의 필요를 더욱 채우실 것이며(10~11절), 연보를 받은 이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됩니다(12~14절). 이처럼 바울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 나눔과 채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일에도 기쁨으로 참여해 나눔과 채움의 주관자가 하나님임을 온전히 경험하기 바랍니다.

10일(화)	찬 218장	고후 10:1-8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	---------------	------------------	-------------------------

고린도교회 안에는 계속해서 바울을 비방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고 합니다(2절). 특히 비방하는 자들의 눈에는 바울이 그다지 권위 있어 보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그들을 방문했을 때 어떤 권위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바울이 실제로는 영적인 권위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를 행사하지 않고 먼저 섬기는 모습은 예수님과 같은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었지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오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힘이나 권위가 아닌 섬김으로 고린도교회를 대했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신을 폄박하는 자들을 향해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고,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공급하시는 섬김의 능력으로 싸운다고 말합니다. 육체에 속한 부와 명성과 정치적 권력 등은 이 땅에서 어느 정도 힘을 행사할 수 있지만 영적인 전쟁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당신은 당신에게 적대적인 자들을 어떤 모습으로 대응합니까?

개인새벽예배 묵상집

11일(수)	찬 425장	고후 10:9-18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	---------------	-------------------	---------------------

바울의 비판자들은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도적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는 데 열심을 냈는데, 이는 당시 로마 사회의 보편적인 문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 달리 자기 자랑하기를 삼갔던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10절)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어떤 이들은 비방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기 위해 바울에게 저들처럼 자랑해 보라고 등을 떠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누구와도 비교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 주신 사명만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랑은 주 안에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인정이 올바른 인정이다”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온 자랑인지, 아니면 나의 인간적 자랑인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세상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바울의 자랑 기준을 마음에 새기기 바랍니다.

12일(목)	찬 273장	고후 11:1-15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	---------------	-------------------	------------------------

바울은 자신을 남편인 그리스도와 정결한 처녀인 고린도교회 성도가 하나 되게 하는 중매자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거짓 복음으로 인해 이 관계가 무너지고 있음을 알게 되자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책망합니다(2~3절). 사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거짓 복음에 미혹돼 바울을 열등한 사도로 여겼습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적 권위를 주장하면서 말(복음의 전달 방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지식(복음의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합니다(5~6절).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이들에게 재정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 고린도교회에서는 무보수로 사역했다고 설명합니다. 반면 거짓 사도들은 바울의 겸손한 태도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13~14절). 하지만 바울은 스스로 사역자로서의 자세를 지키며, 교회의 영적 안녕과 순결에 집중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처한 현실과 상관없이 애끓는 심정으로 헌신해야 옳습니다. 늘 믿음으로 주어진 시험을 능히 이기는 사명자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